



# 제주국제관악제 여름·겨울 시즌제 도입한다

연중 상설화 취지 분산 개최  
여름 시즌 국내팀 위주 공연  
겨울엔 첫 관악작곡콩쿠르  
여름 관악콩쿠르 영상 예선  
겨울엔 교향악단 협연 결선



2020 제주국제관악제.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위주로 치러졌다. 사진=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제공

‘섬, 그 바람의 울림’이란 주제 아래 8월을 상징하는 대표적 음악축제로 자리 잡은 제주국제관악제가 26회째인 올해부터 여름, 겨울 시즌제를 도입한다. 세계 젊은 작곡가들의 관악곡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주관악작곡콩쿠르도 처음 치른다.

이번 시즌제 운영은 제주국제관악제의 연중 상설화를 꾀하기 위한 행보라는 점에서 눈길을 모은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특정 시기에 대규모 음악 축제를 진행하기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9일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가 공개한 2021 기본계획에 따르면 여름

시즌은 8월 8-15일 운영된다. 이때는 제주도립서귀포관악단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제주아트센터, 문예회관 대극장, 서귀포예술의전당 등 주요 공연장에서 라이징스타·양상블·관악단 콘서트, 청소년관악단의 날, 대한민국의 관악단 연합공연 등이 관람 인원을 제한해 이어진다. 공공 공연장을 벗어난 장소에서 펼쳐

는 우리 동네 관악제도 예정됐다. 이 기간에는 문예회관에서 기록물 전시회도 열린다. 제주교육과 관악 발전에 헌신한 고봉식 전 제주도교육감, 제주도 최초의 관악대 창설자로 알려진 김버트 소령 관련 기록물 전시를 계획하고 있다. 겨울 시즌은 12월 3-7일 마련된다. 8월 9-13일 트럼펫, 호른, 테너

트롬본, 금관5중주 부문에 걸친 제16회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여름 시즌 영상 예선에 이어 겨울 시즌에는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과 협연하는 현장 결선과 입상자 음악회가 잇따른다.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내외 유명 관악인들이 출연하는 마에스트로 콘서트, 도내의 초등학교 관악단 경연 대회인 U-13밴드콘테스트도 겨울 시즌 프로그램으로 배치했다.

특히 겨울 시즌에는 첫 제주관악작곡콩쿠르를 벌인다. 만 40세 미만 젊은 작곡가를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응모작을 접수한 뒤 심사를 거쳐 12월 결선 연주를 진행하게 된다.

이상철 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여름 시즌은 국내팀 위주로 공연을 하되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는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라며 “저음 시도는 겨울 시즌에도 관악콩쿠르 결선, 작곡콩쿠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국악연희단하나아트.

## 창조 여신 설문대가 본 오늘날 제주

돌문화공원 공연장 상주  
하나아트 레퍼토리 공연  
주말 ‘꿈꾸는 섬: 설문대

‘설문대본품이’는 노래, 굿소리, 기악연주, 제주의 연물 타악으로 설문대가 바라본 오늘날 제주의 모습을 전한다. “살려살려 살려달읍세”라는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제주 섬을 창조한 여신 설문대할망 등을 테마로 조성된 제주돌문화공원에 설문대 이야기가 머문다. 2021년 돌문화공원의 공연장상주단체 중 한 곳인 사단법인 국악연희단하나아트가 올해 첫 레퍼토리 공연으로 ‘꿈꾸는 섬: 설문대’를 준비했다.

하나아트는 이 섬을 창조했다는 설화 속 설문대할망을 통해 제주 태초의 시간과 공간, 제주 사람들과 함께해온 자연을 돌아보는 무대를 꾸민다. ‘제주’에 담긴 가치를 잊지 않고 후대에 기억, 전승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다.

‘꿈꾸는 섬: 설문대’는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전통 타악과 소리, 기악 연주가 어우러진 하나아트의 대표 레퍼토리인 ‘바람유희’로 시작해 ‘설문대본품이’, ‘무제’ 1-3, ‘절석놀이’에 이어 ‘이어도사나’로 막이 닫힌다.

창작곡이 펼쳐지는 3편의 ‘무제’ 연작은 연주곡에 대한 정보 없이 무한대로 상상하며 음악을 느껴볼 수 있도록 했다. ‘절석놀이’는 ‘파도’를 뜻하는 ‘절’과 제주 장단의 가름을 의미하는 ‘석’이 합쳐진 타악 연주곡이다. ‘이어도사나’에선 설문대가 꿈꾸었을 이어도를 그리며 관람객들과 함께 부르는 소리로 희망의 노를 짓는다.

고석철(피리) 고은경(해금) 부혜미(보컬) 오승진(대금) 김수하(신시사이저) 부진희(굿소리, 연물 타악) 김현주(타악) 김만호(타악) 이성희(타악) 원익준(드럼)이 출연한다. 공연 일정은 이달 12-13일 오후 7시30분. 관람료는 1만원. 회당 입장 가능 인원은 40명으로 돌문화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 예약을 받고 있다. 둘째 날 공연은 국악연희단하나아트 유튜브 채널로 중계된다. 문의 710-7732. 전선희기자

## ‘제주귀와 팔도 반단이’에 깃든 옛 사람들의 삶

제주공예박물관 기획전  
여러 문양 금속 장식 등  
전국 반단이 한자리에



제주공예박물관 소장 제주귀.

앞의 위쪽 절반이 문짝으로 되어 아래로 쫓겨 여닫게 된 귀 모양의 가구를 일컫는 반단이.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목가구 중 하나다. 제주에선 이 반단을 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그릇을 의미하는 귀(櫃)로 통칭해 왔다. 지난해 10월 민속품 전문가인 양

의숙 관장이 제주시 한경면 저지문 화예술인마을에 새롭게 문을 연 예나르 제주공예박물관이 개관 후 두

번째 기획전으로 제주와 다른 지역 반단을 비교해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를 마련했다. 이듬해 ‘제주귀와 팔도 반단이’다.

반단은 이즈음 브랜드 가구가 넘쳐나기 전에는 빈부귀천이 없던 살림의 기본 도구였다. 안방, 사랑방, 대청에 놓여 사철 옷가지와 옷감, 서책이나 문서, 귀중품 등을 보관했고 윗면에는 이불이나 생활 소품을 얹어 사용했다. 이들 반단은 나무 몸체에 달린 여러 문양의 금속 장식들도 저마다 개성을 드러낸다.

이번 전시에는 제주공예박물관이 제주에서 수집한 ‘귀’를 중심으로 약 40점이 나온다. 제주 ‘귀’의 모양에 영향을 끼쳤다는 전라도 해안 지역 반단이 등 전국 각지 반단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 박물관 측은 “일상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공예품인 반단을 통해 제주 사람들의 삶과 그것을 만들어낸 바탕이 되었던 자연 환경까지 살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전시는 이달 10일 시작돼 8월 29일 까지 이어진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전시 기간 중 6월 29일, 7월 13일, 7월 27일, 8월 17일에는 반단이 제작 과정을 시연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전시장 연락처 772-4280. 전선희기자

## 예술가곡으로 즐기는 ‘독일의 휴일’

제주오페라연구소 공연  
늦깎이 성악가 출연 무대

제주도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지는 ‘독일의 휴일’이란 제목의 음악회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 슈베르트, 볼프, 슈트라우스 등이 작곡한 낭만적 가곡을 들려준다. ‘끌로에에게’, ‘아, 나는 떠나가고’, ‘제비꽃’, ‘미봉의 노래’, ‘은둔’, ‘기도’,

‘쉬어라, 나의 영혼아’ 등이다. 출연진은 제주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한 소프라노 박민숙, 김애리라, 박다희, 채영순씨다. 성악에 대한 꿈을 안고 뒤늦게 음대에 진학해 공부한 ‘늦깎이’ 음악인들이다. 솔리스트로서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이탈리아 가곡 연주회에 이어 동일한 성악가들로 꾸미는 기획 무대다. 피아노 반주는 박문향, 이영지

씨가 맡는다. 입장 가능한 인원은 50명 이내다. 코로나19에 따라 사전 예약으로 관람 가능하다.

2015년 창립한 제주오페라연구소는 그동안 오페라 ‘나비부인’,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토스카’, ‘라보엠’ 등을 무대에 올려 왔다. 7월 10일에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가곡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을 공연할 예정이다. 문의 900-8068.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쏙지

민속예술 온라인 경연

6월 부끄럼복클럽 운영

제주도문화원연합회가 지난해 중단됐던 전도학생민속예술경연대회를 올해 ‘민속예술 청소년 온라인 문화 한마당’으로 부활해 치른다.

경연은 풍물(3분 이내, 단체는 10분 이내), 민요(3분 이내), 제주 관련 동화 구연(3분 이내), 제주 소재 시 낭송(2분 이내)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시된다. 도내 초·중·고교 청소년 등 참가자들은 관련 영상을 모바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7월 30일까지로 선착순 4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제주도문화원연합회 인터넷 다 음 카페 참고. 문의 752-0302.

제주시 신성로에 있는 달리도서관이 6월 ‘부끄럼복클럽’에서 김현진 장편 소설 ‘늑츰 배달원 강정민’을 읽는다. ‘늑츰 배달원 강정민’은 여성 청년이 배달 노동에 하며 웹툰 작가는 꿈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성장기를 담고 있다. 늑츰 배달원으로 2년 가까이 일했던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일정은 이달 18일 오후 7시30분. 사전 신청자의 인원에 따라 달리도서관이나 온라인(Zoom)을 이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전화(702-0236)나 인스타그램(@dalli\_jeju)을 이용하면 된다.

# 꽃나들이봄

문인환 / 박일용 / 이강화 / 이수동 / 이영수 / 최지윤

2021. 5. 6 THU ~ 6. 18 FRI

관람시간 안내

평일 | Open 11:00 | 주말 | Open 11:00 | 휴관 : 매주 월요일  
Close 18:00 | (±, 日) | Close 17:00 | 문의 : 064-750-2543

제주시 서사로 154 한리일보 1F Gallery IED